

서울캠 내일(3일) 전면휴업

학생, 10명중 9명 총장낙점 불인정...“지속적 투쟁 펼칠 것”

‘재단의 일방적 총장 낙점 불인정’과 11월 3일 전면휴업 성사를 위한 민족통국 총투표 결과 투표자의 91.92%인 5천1백7명이 현 총장 낙점 반대, 투표자의 82.61%가 11월 3일 전면휴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도서관을 비롯한 교내전역에서 실시되었던 총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1만 1천 25명 중 50.04%인 5천5백56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지난 달 22일 재단의 일방적 현 송석구 총장 재선임 발표후 열린 비상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이미성·국교4 이하 총운위)에서 의결, 곧바로 투표준비에 들어간 총운위는 교내에 투표소를 설치, 지난 28일부터

투표를 진행해 왔다.

지역별 투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장 인정:불인정, 전면휴업 찬성:반대)
△도서관(65:8백34, 7백34:1백65) △불대(36:1백10 무효3, 1백1:40 무효8) △문과대, 이과대(33:6백16 기권1 무효1, 5백44:1백5 무효2) △사과대(40:3백39, 3백4:75) △경상대(78:6백76 기권1 무효1, 6백50:1백2 기권2 무효2) △생자대(29:3백53 기권2, 3백13:67 무효1 기권3) △공과대(35:7백3 기권1, 6백:1백37 기권2) △사법대(33:4백85 무효1 기권1, 4백47:72 무효1) △예술대(20:2백98, 2백56:60 기권2) △아간강좌(33:3백86 기권1 무효1, 3백48:72 기권1) △동아리(30:3백7 무효1, 2백93:44 기권1)

이번 투표는 중간고사 기간과 겹치고 사전홍보가 부족했음에도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참여해 학생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될 총장 연임결정 철회 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미성 부총학생회장은 “투표가 긴급하게 준비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결과는 우리 학생들도 결코 불의를 보면서도 참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 투표를 통해 보여준 것”이라고 밝힌 뒤, 이후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학내 제주체들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과 29일에는 각각 지리교육과와 국어교육과가



민주동학...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장불인정과 11.3 동맹휴업 찬반 총투표가 서울캠에서 실시됐다. 개표결과 압도적인 지지로 내일(3일) 전면휴업이 결정되었다. 한 학생이 도서관 앞 투표소에서 인명부에 서명하고 있다.

파도론회를 통해 과 전면휴업을 결의하였고, 사법대 학생회(회장 =이선진·수교4)는 오늘(2일) 오후 사법대 앞에서 ‘11.3 전면 휴업 성사를 위한 사법대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교수회, 무기한 농성 돌입

투쟁 가속화... 노조에 비상연석회의 제안

교수회(회장=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가 지난달 29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재단의 일방적 총장연임결정 저지를 위한 학내 주체의 투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서울캠 본관 강강당에서 ‘법인이사회의 일방적인 총장선임 결정저지를 위한 교수회 비상임시총회’가 서울캠 교수 1백75명(위원장 86명)·경주캠 교수 1백29명(위원장 1백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덕기 교수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수회 및 교원은 반드시 수호해야 하므로 어떠한 위협·협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비대위 구성, 비상사태의 대처방안, 중앙도서관장을 사퇴한 임호일(독문학)

교수의 변,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으며 지난달 26일 서울·경주 합동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한 비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어 강정구(사회학) 교수는 “합법성이 정당성은 아니다”라며 “이번 재단이사회의 결정은 사립학교법이라는 악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 재단이 내세우고 있는 총장연임결정의 합법성에 대한 반박의사를 펼쳤다.

총회가 끝난 후 교수회는 비상 앞에서 재단이사회의 총장연임결정 즉각 철회, 현 총장 즉각 사퇴, 총동창회장 및 이사진 사퇴를 주장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교수회 사무실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달 30일 교수회 비대

위는 회의를 통해 총장선거일정을 변경했다.

총장선거일정 연기에 대해 교수회측은 “총장이 단과대 학장 및 측근 교직원들 동원해 재단의 일방적 총장선임결정의 지지를 교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적 분위기에서는 총장선거가 원만히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해 선거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늘(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총장 후보자 등록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며 다음달 9일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교수회측은 ‘재단의 일방적 총장선임 무효화를 위한 교수회·직원노조 비상연석회의’를 작일 노조측에 제안하기로 결정, 앞으로 힘있는 연대투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9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 확정

인문·자연계열 교차지원 가능...학부통합·주간전환 이뤄져

캠퍼스(종급)	구분	조정내역	세부전공 변경내역
서울캠퍼스 (종합없음)	모집단위 명칭변경	○ 공학계열 → 기계·식품·화학공학 학부	○ 인문학부 90 ·사학 ·철학 ·관리문화학
	학부통합	○ 사회과학계열 신문방송학과 아시아지역학 } 사회과학부 ○ 생명자원과학부 } 생명자원과학부 ○ 영어중문학과 50 ○ 물리·반도체과학부 반도체과학 전공 40 ○ 신문방송학과 50 ○ 아시아지역학부 40 ○ 경영학부 광고전공 50	○ 사회과학부 210 ·정치외교학 ·행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아시아지역학
경주캠퍼스 (종합없음)	모집단위 명칭변경	○ 한국어문학부 → 국어국문학부	○ 생명자원과학부 120 ·식물자원학 ·산림자원학 ·응용생물학 ·생명자원산업융합학
	학부통합	(주간전환) ○ 국어국문학부 문예창작 전공 6명 중 ○ 법학과 20명 중 ○ 경찰행정학과 10명 중 ○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40명 중 ○ 연극영상학부 10명 중	○ 기계·식품·화학공학부 190 ·기계공학 ·식품공학 ·화학공학
경주캠퍼스 (종합없음)	모집단위 명칭변경	○ 한국어문학부 → 국어국문학부	○ 컴퓨터정보통신학부 210(40) ·컴퓨터학·정보정책학 ·정보통신공학
	학부통합	○ 통신정보학부 } 컴퓨터정보통신학부 ○ 정보통신공학부 } 학부	

* 괄호안은 이전정원임.

99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확정됐다. 인문·자연계열의 교차지원이 가능해졌으며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특차모집의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서울캠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이번 99학년도 신입생모집에서 전제 모집인원 증감은 없으나 각 과별로 인원이 증감됐고, 야간강좌의 주간전환이 이뤄졌다.

▶관련기사 서울캠 2년

서울캠의 경우 이전 공학계열이 기계·식품·화학공학부로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됐으며, 생명자원과학부와 생명자원경제학부가 생명자원과학부로 학부통합이 이뤄졌고, 신문방송학과와 아시아지역학부가 주간으로 전환되면서 사회과학부로 통합됐다.

법·한의·의대 교수등 송총장 연임결정 지지

제14대 송석구총장 연임결정소식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불교대, 법과대, 사회과학대 일부 교수와 불교문화대 교수들이 이번 연임결정에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의대, 한의대의 병원소속 교수들은 경주병원 증축등 지속적인 발전과 향후 일산 불교종합병원건립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현 송총장의 연임결정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독문과·주한독일상공회의소 국내대학 최초 취업지원 협약

서울캠 독어독문학과가 지난 29일 국내 대학 최초로 주한 독일상공회의소(사무총장=푸로리언 슈프너)와 취업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취업지원협약은 독일 상공회의소가 본교 독문학과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홍기삼·임호일 교수 보직 사퇴

지난달 27일 서울캠 문과대학장 홍기삼(국문학) 교수와 중앙도서관장 임호일(독문학) 교수가 재단의 일방적인 총장 연임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보직을 사퇴했다.

성용길 이과대학장 교분자학회 회장선임

이과대학장인 성용길(화학) 교수가 지난달 16일 열린 제45회 한국고분자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제17대 한국고분자학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교원임면권을 총장·학장에게”

사립학교법 개정방안 지난달 19일 공청회 열려

사립학교법이 재단이사장에 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인정하는 등 정당성을 잃은 악법이라는 중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공청회가 지난달 19일 오후 2시 90주년 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교육부 후원, 사립학교법 개정 자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사립대학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공청회는 박재운(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연구원이 발표자로, 토론자로는 본교 박부권(교육학)교수, 이경운(전남대), 이시우(서울여대), 백봉호(한국대

학법인협회 이사), 이재운(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 이기우(인하대) 교수가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 박재운 연구원은 “사학에서는 구성집단 사이의 갈등, 교원임용과 학생 선발에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바람직한 사학은 사학 구성원 사이에 진정한 신뢰 관계를 확보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양양돼야 하는 곳”이라고 사립학교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는 사학의 운영구조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

법 개정 방안으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대학평의회 제도 적용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를 개방하는 방안, 학사에 관한 심의기구를 법정화하는 방안 등 교원임면권을 총·학장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박부권 교수는 “이러한 개혁에는 총장의 강력한 지도력이 필수적”이라며 총장의 권한강화를 주장했고, “대학의 경쟁력은 1차적으로 연구·교수능력에 의하여 좌우된다”라며 능력 있는 교수가 인정받는 대학풍토를 조성해야 함을 역설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의 여론수렴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최종확정, 이르면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미경 기자

이일형씨, 창업경진대회 1위

단일집 집적회로 출품

창업경진대회 서울예선에서 본교 학생들이 만든 MWT팀과 Re4F팀이 각각 1위, 3위를 차지해 오늘(2일)과 내일 열린 전국 본선대회에 진출한다.

1위를 차지한 이일형(전자공학 박사과정)씨의 MWT팀은 초고주파 통신을 위한 ‘단일집 집적회로’를 출품했으며 이 팀은 이동통신위성통신에 사용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아 앞으로 많은 수요가 기대된다.

교수동정

▲이심현(경철행정학)은 지난 9월 28일자로 법무부 전문교수에 위촉됨
▲한봉희(법학)는 오늘(2일)부터 오는 7일까지 한·일 가족법학회 주제 발표차 일본 방문

동대 학술상·문학상을 모집합니다

제36회 동대 학술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본상 및 가작
사회과학상: 본상 및 가작
자연과학상: 본상 및 가작
△응모요령: 3개 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
인문과학상: 본상50만원 가작25만원
사회과학상: 본상50만원 가작25만원
자연과학상: 본상50만원 가작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직과 함께 발표
△심사장 발표: 1999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13회 동대 문학상 작품모집
△모집분야
시부문: 본상 및 장려상
소설부문: 본상 및 장려상
평론부문: 본상 및 장려상
△응모요령
시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
시부문: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직과 함께 발표
△심사장 발표: 1999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야총, 학제개편문제 일단락

공청회·총회서 학생의견수렴...교수통해 공식 요청키로

99학년도 대학학생정원 조정 중 야간강좌 5개과의 중간전환 및 학부통합과 관련해 지난 한달여 동안 해당학과 학생들의 강한 반발이 교수들과의 잠정 합의를 통해 일단락 되어질 전망이다.

야간강좌 5개과는 지난주 해당학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공청회 및 과총회를 개최하고 투표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수들이 수용하여 학교측에 공문을 발송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키로 했다.

학생들의 의견 수렴 결과 5개과 중 중어중문학과, 물리반도체과학부 반도체과학 전공, 신문방송학과 등 이상 3개 과는 중간으로 전환을 찬성했다. 반면, 아시아지역학부와 광고학과는 학생들의 투표결과에 따라 야간으로 남기로 결정했다.

아시아지역학부의 경우 중간 전환과 함께 사회과학부로 소속됨에 따라 단일학과를 주장하며 야간으로 남기를 희망한 것이다. 광고학과와 영어교육과도 중간전환시 경영학과로 통합되는 것을 희망해 야간에 남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 7월 교육부는 야간강좌 총정원의 50%이내에서 중간으로 전환해 할 수 있다는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 이에 학교측은 야간에에만 개설된 과에 한해 학과 자체 논의를 통한 여론수렴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교육부에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학과 학생들은 이미

교육부로 답변이 올라간 후인 9월 야간 이 사실을 접하고 학사행정에서 학생참여 보장등을 요구하며 강한 반발을 표실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교육부의 최종 답변을 바탕으로 학교측이 5개과의 중간전환 결정을 포함하는 99학년도 대학학생정원 조정결과를 발표하자 야간강좌와 학생들은 지난달 27일 총장실집거를 시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시작했다.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각 과 교수들은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뒤늦게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고 교육부에 이미 승인된 사항이라 번복은 어려운 것 같다"는 기획조정실의

한 관계자의 말처럼 지금에 와서 학생들의 여론에 따라 학제개편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간강좌총학생회의 이종환(전산통계4) 학생회장은 "부득이하게 교육부 승인안대로 가게 된다면, 대신 학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전공교수 확충 등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대안 또한 시급하다.

이번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매년 되풀이 되다시피하는 학생의 참여 보장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앞으로 학생들의 여론수렴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 마련이 정착돼야 할 것이다. **남대철 기자**

회전문대

날자, 날자구나

○...비상(非常)? 비상(飛翔)? 지난달 29일 법인이사회의 '법인 이사회의 총장연임 결정지시'를 위한 교수회의 비상 임시총회가 열렸는데,

비상(非常)대책을 의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논란 때문에 마이크로 비상(飛翔)하기만 하니,

겨우 시작된 회의는 지루하지 않게도(?) 단숨에 끝나고,

이에 본 회전문대자 월, "호두껍질은 까기 힘들지만 먹기는 쉽다."

국회 출현!

○... "교수회 비상임시 총회=국회(?)"

알아본즉, 이사회의 일방적인 총장선임 저지를 위한 이번 회의는 최소의결 정족수에 대한 회칙 해석의 차이로 정작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는데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일이 오른 몇몇 교수님들의 큰 목소리와 사대질 하는 모습은 국가 부도상황에서도 분열돼 있는 국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월, "교수회의 비상사태 국회 따라하기, 비상하다!"

보일러

○... "보이지 않는 손?" 사회회는 현 총장의 중임 결정에 대해 동의할 것을 교수님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조심스럽게 관하고 있다는데,

총장임명 반대 위임장을 보낸 교수님들은 많았지만, 임시 총회에 참석한 수가 매우 적었던 이유는 이러한 학교측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이라고,

이에 본 회전문대자 월, "꼭꼭 숨어라 손가락이 보일라!"

아우성

○... "화장지가 부족했던 그때를 잊으셨나요?"

각 건물마다 화장지가 남아있지 않는다는데,

알고보니 화장지를 공처럼 등쳐서 사용하는가 하면 쓰지도 않으면서 마구 풀어놓기 때문이라고,

화장지가 없어 불편을 겪어야 했던 일말전까지의 곤란함을 벌써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에 본 회전문대자 월 "동공인의 아우성이 필요하다. 아: 아름다운 우: 우리의 성: 성숙한 의식!"

이월적립금 해부

대부분 등록금과 무관한 기금

학교당국, 적극적 입장표명으로 재정투명성 알리려

〈학교기금적립 현황 98년 2월 현재〉 (단위: 백만원)

기금종류	적립액
연구기금	729
해외연수	303
등록금	4,067
연구간접기금	798
소계	24,678
장학기금	24,678
퇴직기금	4,672
기타기금	7,723
100주년	168
채권	73
복지기금	287
생필기금	8,251
소계	94
미사용 이월자금(차기)	44,942

이월적립금 4백97억원을 둘러싼 의혹이 학생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당국이 이에 대한 내역을 공개해 향후 새로운 국면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월적립금 문제는 한국 대학신문의 '사립학교 등록금 이월 적립'이라는 기사로부터 불거져 나온 것이며 사학진흥재단이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사립학교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국민회의 설훈 의원이 분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설훈의원의

한편, 지난달 26일과 27일 실시된 단과대 대의원회 의장 후보자 등록 결과 △불교대=김현석(불3), 광우기(불3) △예술대=이강혁(미술2) △경상대=임경대(경제통상2) △문과대=오종진(사4) 등 총 4개 단과대에 5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했으며, 투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중 단위로 선택한 2일간 진행된다.

어쨌든 학교 당국이 4백9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4백97억원에 대한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이제까지 학교측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의혹이 증폭된 감이 없지 않다. 공개한 내역항목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기금 2백46억원원은 등록금과 무관한 재단 전입금으로 법원에서 50억원, 병원 수입에서 1백90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룸비

대학원 학생대표자회의

14대 대학원총학생회(회장=박정진·정치학 박사과정 2학기) 정기 학생대표자회의가 지난달 28일 오후 5시 총학생회실 내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기간 사업의 총화 및 신입 신문편집위원회 임원에 대한 인준, 추계학술제 준비상황 및 동원학술협의회 건설과 관련한 보고, 회칙개정 발의 등의 안건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재단이사회의 현 총장 연임결정 부당성에 대해 대학원 학생대표자들이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한편 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동안 추계학술제를 개최했다.

총대, 학생회 선거일정 일주일 연기

총장선출 관련 학내사태로 인해...오는 24일부터 단과대 투표

단과대 대의원회 의장 선거를 제외한 학생회 선거일정이 1주일씩 연기됐다.

총대의원회(의장=신현찬·연영4 이하 총대)는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어 총장선출과 관련한 학내사태로 인해 안정적인 선거가 진행되기 힘들다고 판단, 총학생회칙 제18장 1백7조 7항의 선

거 중단 및 연기에 관한 사항에 의거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총대와 졸업준비위원회 선거는 △후보자 등록=4일부터 6일까지 △투표=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및 각 단과대 학생회 선거는 △후보자 등록=4일부터 6일까지(단과대 학생회 선거는 4일부터 5일까지)

△투표=24일부터 26일까지 치러진다.

한편, 지난달 26일과 27일 실시된 단과대 대의원회 의장 후보자 등록 결과 △불교대=김현석(불3), 광우기(불3) △예술대=이강혁(미술2) △경상대=임경대(경제통상2) △문과대=오종진(사4) 등 총 4개 단과대에 5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했으며, 투표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중 단위로 선택한 2일간 진행된다.



아쉬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백상예술제전은 재단의 날치기 총장선임으로 많은 일정이 미루어지고 말았다. 아쉬운 학내 분위기 탓인지 지난 30일 저녁 열린 백상예술문화제는 1백여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촐히 치러졌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교내 노래 모음인 '히안집'이 공연을 하고 있다.

거 중단 및 연기에 관한 사항에 의거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총대와 졸업준비위원회 선거는 △후보자 등록=4일부터 6일까지 △투표=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및 각 단과대 학생회 선거는 △후보자 등록=4일부터 6일까지(단과대 학생회 선거는 4일부터 5일까지)

한편 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동안 추계학술제를 개최했다.

오는 4일 영상가요 녹화

KBS TV '일요일은 즐거워' 동국대편 녹화가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된다. 이날 장기자랑에는 지난 28일 실시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4개팀을 비롯해 경주캠퍼스 연예인팀 등 총 20개팀이 참가하며, 컷플 이벤트 코너에는 면접을 통과한 25개팀(예비5팀)이 참가하게 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의 방송에 전일은 다음달 6일 오후 6시50분이다.

'경찰로 가는길' 특강

취업과(과장=김병수)는 내일(3일) 오후2시 본관 중앙강당에서 이상현(경찰행정학)교수의 '경찰로 가는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2545 DRIMS 보고서

정보관리처(처장=엄기현·컴퓨터공학)는 오는 4일 오후5시 90주년 기념문화관 덕담세미나실에서 '동국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2545 DRIMS) 개발 완료에 대한 보고회를 갖는다.

지광스님 초청특강

사회교육원(원장=권기종·불교학)은 오는 5일 오후 2시 본관 중앙강당에서 지광스님을 초청해 '불교와 정보화시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마련한다.

신 체 검 사

재학생들의 건강증진, 예방, 치료(4학년은 채용신체검사대비)를 위한 98학년도 재학생 신체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일 시 : 98년 11월 3일(화) ~ 11월 4일(수)
- 장 소 : 본교 보건소
- 대 상 자 : 재학생 전체
- 검사항목 : 간이능력검사(SGOT, SGPT), 간염항원·항체, 혈압, 빈혈검사(헤모글로빈), 흉부엑스선촬영, 소변검사(잠혈, 당뇨, 단백뇨)
- 비 용 : 무료

보 건 소 장

대학연구·실험실 단계 유급 연구조교 모집

금번 교육부에서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 졸업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유급조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모집인원 : 80명
- 자격요건 : 95학년도 이후 졸업자 중 미취업자
-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졸업·성적증명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명 첨부 가능
-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세대주의 실적 증명, 세대원이 모두 무소득임을 증명 등

- 신청일 : 10월 29일(목) ~ 11월 6일(금)
- 추천 및 배정일 : 11월 9일 ~ 13일
- 근무일 : 11월 16일
- 근무기간 : 98년 11월 ~ 99년 2월(4개월)
- 접수처 : 학생처 취업과(260-3054)

학 생 처 장

99학년도 교환학생 선발요강

- 파견기간 : 99년 3월 ~ 2000년 2월(12개월간)
- 해당 대학별 선발인원, 지원자격 및 수확조건
 - 본교측 수확조건
 - 파견자는 매학기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본교는 장학생 선발규정에 의거한 해당자에 한해 해당학기 수업료의 반액을 면제
 - 학점인정(파견대학에서의 취득과목명, 학점, 성적을 그대로 인정)

파견국	파견대학	선발인원	지원자격	수확조건	비 고
일 본	용국대학	3	현재 학부 2학년(4학기)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이상이며,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 등록금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기숙사제공 • 월10만엔 (장학금)지급	
	불교대학	2		• 등록금면제, 기숙사비 본인부담(할인) • 월 8만엔 (장학금) 지급	선정자에 한함
	고마자와대학	2		"	"
	삿포로학원대학	2		"	"
중 국	청화대학	3	현재 학부 2학년(4학기)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이상이며,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 등록금 10% 면제 • 기숙사비 10% 면제	
	상해사범대학	3		"	

- 선발방법 : 공개시험 전형
 - 가. 학교성적 20%
 - 나. 해당국어 필기시험성적 20%
 - 다. 해당국어 회화시험성적 20%
 - 라. 일반면접 40%
- 전형일정
 -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1) 기간 : 98년 10월 19일(월) ~ 11월 4일(수)
 - 2) 장소 : 서울캠퍼스 학술교류부, 경주캠퍼스 학술연구부
 - 나. 전형일시 및 장소 : 98년 11월 6일(금) 14:00~. 서울캠퍼스 본관 1층 C103

* 경주캠퍼스 : 원서 접수결과는 서울캠퍼스 학술교류부로부터 마감일 엄수하여 일괄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술교류부(☎ 260-3876)로 문의 바랍니다.

연구교류처장

교직복수전공 이수 신청

- 신청자격 : 98학년도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사범대생(학번무관)
- 신청기간 : 98년 11월 10일(화) ~ 11월 12일(목)
- 접수처 : 사범대학 교학과
- 신청가능학과 : 사범대학내의 학과만 가능
- 신청방법 : 신청학과와 주임교수 합의를 받아 사범대 교학과에 접수 (신청서는 사범대 교학과 비치)
- 이수학점 : 신청학과와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포함한 전공 4학점 이상

교직부전공 이수 신청

- 신청자격 : 98학년도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자(학번무관)로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확정 선발된 자 및 사범대생
- 신청기간 : 98년 11월 10일(화) ~ 11월 12일(목)
- 접수처 : 소속대학 교학과
- 신청가능학과(전공) : 교직과정인 승인된 학과(전공) 및 사범대학의 학과만 가능
- 신청방법 : 신청학과(전공)의 주임교수 합의를 받아 소속대학 교학과에 신청
- 이수학점 : 신청학과(전공)의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포함한 전공 2학점 이상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 선발대상 : 교직과정이 승인되어 있는 학과(전공)에 98학년도 현재 2학년 2학기 재학중인 자(학번무관)
- 신청기간 : 98년 11월 4일(수) ~ 11월 6일(금)
- 접수처 : 희망자 소속학과(전공) 사무실
- 선발방식 : 가. 교육부승인 인원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나. 교직과정수 신청자 중 지난 3개월간 성적순으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학과(전공)에서 선발한다.
다. 편입자는 전전대학교의 성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선발한다.
- 성적산출방식 : 취득 평점평균/4.5×1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범대 교학과(☎ 260-33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사 범 대 학 장

6자회의 구상의 의미 **논단**

한반도 평화·동북아 안정유지 위한 초석

98년 10월 24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제네바 4자회담에 참석중인 4개국 대표단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논의할 2개의 분과위 구성에 합의했다. 이로써 96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제의하고, 97년 12월 1차 분 회담이 시작된 지 11개월만에 4자회담은 실질적인 협의에 착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4자회담의 진전과, 98년 10월 초 한일 양국 정상이 합의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 중 다자간 지역 안전보장 대화에서의 협력부문에서 신뢰 구축 및 예방외교를 촉진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의 구체화를 지향하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이 더욱 발전 강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소 지역 단위에서 6자회담 등)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란 한마디로 남북한이 어떤 형태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진전된 형태는 4자회담이라 할 수 있는데, 4자회담의 많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의 일방적 주도성, 일본과 러시아의 상대적 소외감, 그리고 남한 외교의 자율성 축소라는 측면에서 4자회담을 넘어서 지역 내 다자간 안보협력의체나 소지역 단위에서 6자회담이 구상되고 있다. 6자회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포함한 주변 4강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구체화시키자는 평화회의로서, 남북한이 주축이 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보장 또는 지지하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확립문제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이 6자회의 구상은 현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88년 구 소련과 노태우정부, 93년 김영삼 정부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안된 구상인데, 그 동안 미국과 일본의 소극적 태도, 북한의 불응으로 진전되지 못했다. 이 구상은 대표적 다자간 협의체인 유럽안보협력회의(OSCE, 1995년 1월 유럽안보 및 협력기구(OSCE)로 개칭)를 모태로 구상되었으며, 현재 그 동안 4자회담에서 미국의 주도로 인하여 미묘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일본과 러시아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현실적 제안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6자회의

구상의 실효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이대우 "김대중 정부의 첫 외교:6개국 선언 제의",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1998.2.28)') 첫째, 탈냉전시대이지만 현재 동북아 지역 안보는 군비증강, 영토분쟁, 남북한 분쟁가능성, 갈등영역의 확대로 불투명한데 이러한 문제들은 양자간의 관계증진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지고 있어 관련국들의 협력안보에 의해서만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 둘째, 동북아 지역내 국가들은 경제교류 및 협력을 통한 상호의존의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상호의존이라는 상황의 파괴를 피하기 위해 안정적인 안보질서를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대화체널 내지는 합의를 구성하여 각국의 국사력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반도 문제는 주변 4강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당사자간의 해결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통하여 그들의 이익을 조정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여 군사적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황 의 서
법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으로 이어짐을 감안할 때, 이 6자회의를 현재 진행중인 4자회담과 병행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정유지라는 기본 목표 하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소극성으로 인하여 아직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나 주변국들 모두 이 구상에서 얻을 것이 많으므로, 주변 4강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조를 한다면 앞으로 진전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6자회의의 구상은 장점과 함께 단점도 가지고 있으나, 유럽안보협력회의가 독일 통일을 간접 지원하고 역대 신뢰구축에 기여했듯이 동북아 안정 및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사설

정당성 없는 총장은 안된다

지난 10월 22일 법인의 일방적인 총장 연임결정으로 동학이 진통을 겪고 있다. 한동안 잠을 자던 학원자주화투쟁의 깃발이 높이 올랐으며 분노를 금치 못한 학생들은 이사장실을 점거했다. '민주의 죽음'을 알리는 검은 띠가 학내건물 곳곳에 늘어져 있다. 교수·학생·직원 학내 제 주체에 의한 총장선출은 고사하고, 대학 민주화의 산물인 교수직선제조차 무시된 이변사태에 이같은 진통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연으로 받아들이기엔 사태의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교수회에 의하면 현 송석구 총장이 법인의 총장재선임에 대한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각 단과대학장에게 송총장 연임 지지서를 작성하게끔 당부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단과대 교수들은 '교육개혁 3년연속 우수대학 선정' 등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불교종 합병원건립과 구조조정등 당면문제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이번 연임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욱 아리러니한 것은 4년전 제13대 총장선거 출마의 변에서 "제가 부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절감한 것은 교수님들의 절대적인 지지 없이는 대학발전을 결코 실현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만이 대학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교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일을 수행하겠다고 송총장 본인이 4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은 학내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에 대해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동국학원의 정관에 따른 합법적인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비민주성'의 혐의를 벗을 순 없다. 구성원의 의견개진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학에서 법인의 일방적인 총장 낙점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정당성'에 있다. 역대정권을 보더라도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권은 국민에 의해 무너지거나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기 마련임을 감안할 때 법인의 이번 처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이번 재단의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태생적 한계로 인해 얼마안가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본교의 구조상 법인과 조계종단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독자성을 상실함으로써 학교가 법인의 입김에 좌우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다가올 21세기 동국을 이끌어갈 차기 총장이 과연 '학내 구성원'이라는 기반 없이 교육개혁·무한경쟁 속에서 동국을 우뚝 세울 수 있을까. 차기 총장연임결정의 일방적인 모습이 우리의 협동과 공동체 울타리를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울 뿐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무엇인가. 다름아닌 교수회, 직원노조, 대학원총학생회, 학부총학생회의 하나됨이다.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귀가 닳도록 들어온 말을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는 얘기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주체의 사태초기의 발빠른 대응은 있었으나 사건발생 10여일이 지나도록 힘을 합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체간의 보이지 않는 미묘한 이견으로 인해 이렇다할 대응을 못하고 힘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수직선제를 할 것인지, 추대위를 꾸릴 것인지 따위는 접어두자.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법인의 일방적 총장연임 결정을 무산시키거나 못시키느냐이다. 이런 현 학내상황을 감안한다면 법인 이사회와 총장은 학내여론을 겸허하게 받아안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동국'을 불모로 한 게임은 용납될 수 없다. '동국'은 몇 몇 개인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동국 1백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지금의 모습이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 강조한다.

유철주 기자

야간강좌의 주간전환

일방적 학사행정 혼란만 가중

기초학습권 보장받는 대책 시급

야간교육의 주간 전환 문제가 대학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야간강좌의 존폐여부를 가늠할 수도 있는 이번 문제는 단순히 야간교육의 존립 자체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각 대학들의 무분별한 도입, 그에 따른 지속적 시행으로 인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야간강좌는 박정희 정권 시절 노동자 민중들의 교육기회의 부여·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60년대부터 경영학, 경제학 등의 상경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야간강좌는 신설 초기와는 달리 상경계열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학과가 꾸준히 늘어난 상태이고 대학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커졌다.

그러나 실험실습 장비부족과 전공전임 교수 부족 등 기초학습환경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우후죽순격으로 과가 신설되고 올해 7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새롭게 실시되는 대학 정원제도가 기존의 주·야간으로 나뉜던 체제에서 주·야간을 합쳐

정원을 조정하는 총정원제로 바뀌면서 언제든지 '줄비되지 않은 주간강좌'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실정이다.

본교 또한 교육부의 지침 통보 이후 주간 전환문제로 한바탕 흥역을 치르고 있다. 학교 당국은 지난 10월 21일 99학년도 모집정원을 발표해 신문방송학과, 아시아 지역학부, 광고학과, 반도체학과, 중어중문학과 등의 5개학과를 학부로 통합해 주간으로 전환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그러나 이문제는 학생들은 배제한 채, 학교측과 학과교수 중심으로 급하게 진행된 결과로 막상 주간 전환이 되더라도 학과육성방안, 지속적인 교육환경 지원대책 등의 과제를 산정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교 기획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5개과를 우선 주간으로 전환한 뒤에 그 이후에 전공관련 학제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이후에는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시 말해 교육부의 정책이 바뀌면 언제든지 학제개편문제가 재조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중환(전통4) 야간강좌 총학생회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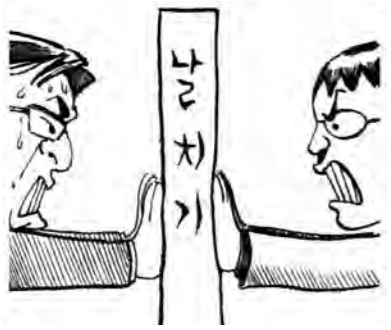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야간강좌는 기초학습권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되어왔다"고 전제한 뒤 "현재와 같이 무원칙하고 전연관성이 학과가 하나의 학부로 통합되는 방식으로 대책없이 주간전환이 이루어지고 난 뒤의 후유증은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 또한 본교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 성균관대의 경우 야간강좌의 사회적 수요가 적은 분야와 경쟁력이 약한 학과를 주간으로 전환하는 등 야간정원을 기존의 7백20명에서 3백60명으로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99학년도 학제개편안을, 서울시립대 또한 지적정보학과 등의 4개과를 주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학생들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후에도 야간강좌의 주간전환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전환 문제가 아닌, 교육당국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전환결정에 앞서 학교, 교수, 학생들 간의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동약론



70년대

“아, 저 xx들 다 끌어내. 이게 뭐야?”
 “선생님, 우리는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본관 이사장실 접거를 시도하려는 학생들과 교직원들간의 몸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이 70년대야? 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교직원들을 진두지휘하던(?) 한 교직원 이 학생들에게 화를 냈고 이에 학생들은 “저희도 90년대식을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한 날치기는 70년대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누가 진정으로 70년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라며 맞받아 친다.
 지난달 22일 재단 이사회의 일방적 총장 선임이후 교수회, 직원노조, 대학원총학생회, 총학생회 등 학내 제주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각 제주체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총학생회 중앙위원들은 비상 앞에서 일주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70년대’ 발언의 원인 제공자인 법인측은 “이번 총장 선출은 합법적인 절차였다”는 일관된 주장만 펴고 있다.
 이날 접거농성에 참가한 경상대의 한 학생은 “불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학내발전을 저해한다. 현 총장선임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식의 항변을 늘어놓는 법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느 학교의 재단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4·19혁명, 5월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을 거치며 민주화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민주적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더욱이 민주화를 선도해야 할 대학에서 민주화를 역행하는 처사는 개교 1백주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동국발전’이 아닌 ‘동국퇴보’를 자처하는 일이다.
 학생들에 의해 접거된 이사장실을 보면서 ‘접거된 동국발전과 붕괴된 대학의 민주주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을 법인측에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유철주 기자

기획 - 실업 시리즈

글 쓰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실업의 원인과 사회적 문제
 2. 대학생실업의 의미와 대책
 3. 대학생실업해결을 위해 뛰는 사람들
 4. 실업 타개책 전망

그동안 고비용·저효율의 질병을 앓아오던 한국경제가 작년 12월 IMF 관리시대로 진입한이후, 가장 큰 사회·경제적 이슈로 제기되어온 것이 대량실업문제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에 65만 8천명 수준이던 실업자 수가 금년 6월에는 1백52만 명에 이르렀고 어느 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8월말 기준, 취업노력을 완전히 포기한 실망실업자와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 일을 도우는 무급가족 종사자 등의 급증으로 이들을 실업자에 포함시킬 경우 실질 실업률은 이미 10%에 달해 실질실업자수가 2백5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30년만에 최악의 실업대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력별로는 고졸실업률이 제일 높지만 20대 전문대 이상 청년의 실업률도 8월 기준 9.9%로 실업자수가 15만 6천명에 달해 동월(5.4%, 8만 4천명)대비 거의 2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고학력 실업난 심화 ... 교육투자낭비 및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금융시장 정상화 기업경쟁력 강화·고용안정 확보로 직결

있다. 이들 대졸청소년들은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실업률이 노동부의 공식적인 전체실업률 7.4%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고학력 청년 실업문제가 내년에 대학을 졸업할 학생들 뿐만아니라 정부측에서도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대졸청년 실업률의 증가 역시, IMF이후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이 그 원인이 되겠지만 앞으로 시행될 6개 시중은행의 감원과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고학력 실업자수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내년 99년에 전문대 및 대학졸업예정자수는 39만 5천명정도로 추산되고 이 중에서 진학 및 군입대 예정자 6만2천명과 취업예상자 12만명(30%)정도를 제외할 경우 적어도 나머지 21만 3천명 정도는 미취업으로 인해 신규실업자로 남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신규 대졸인력은 다가오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노동시장의 중추적인 인격자원인데 이들을 실업상태로 방치할 경우 양질 노동력의 심

각한 훼손으로 교육 투자의 낭비와 같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이들의 장기실업은 향후 경기가 회복되어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직장 적응이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 추가적인 교육훈련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기업의 인력수급 구조상에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졸 신규인력의 실업을 최대한 예방하는 대책수립이 요구되는 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졸예정자에 적합한 공공근로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확충하여 한시적이거나 일지리를 제공토록 한다. 이를테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공공부무정보화 사업이나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 불법음반·비디오물이나 점액업소의 단속, 실업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 고용보험 확대 사업장 조사, 제조업체 작업환경 실태 조사, 사회복지사업, 4대강 수질오염 감시 등의 사업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컴퓨터 및 영어 보조교사나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 보조원, 기타

전문 능력 향상을 취업유망직종 자격 취득자에 대한 일정금액의 정부지원도 단기적인 대책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둘째, 현행 행정부처에서 시행중인 인턴사원제를 각종 협회는 물론 기업체에도 확대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이를테면 정부는 기업체의 신규인력 채용시 기피업종이나 기피지역, 그리고 지방근무에 필요한 인력 등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일정액의 급여를 지원하도록 한다.
 셋째, 해외취업분야의 개발과 지원을 들 수 있다. 사용자단체에 의하면 건설, 정보통신 등에 2만 6천명의 해외취업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취업을 위해 어학 및 전공항상교육등을 지원하고 산업인력 공단의 해외취업센터를 중심으로 재외공관, 민간알선 기관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해외취업망을 구축하여 우수인력의 해외홍보 및 취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넷째, 대졸 신규실업자를 위한 사무직 직업훈련 및 직종 개발로 컴퓨터 교육전문가나 소점포 창업전문가, 실내 인테리어나 영상기술 등 청소년 취향직종 개발, 인

터넷·PC통신 등 원격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 등의 방안을 들 수 있다.
 다섯째, 대졸 미취업자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학의 취업보도실에 LAN을 설치하고 이를 인력은행의 지소로 활용하는 등 직업안정망을 확충하고 또한 취업알선과 창업정보 제공을 위해 현재 실시 중인 채용·창업박람회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의 방안들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제한적인 처방책들로 이 역시 중요하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확실한 대책은 금융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유망기업의 흑자 도산을 막아주고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장차 대학의 내실있는 창업교육을 위해서는 경영학·공학·법학 등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연계전공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선도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영재
 상경대 경상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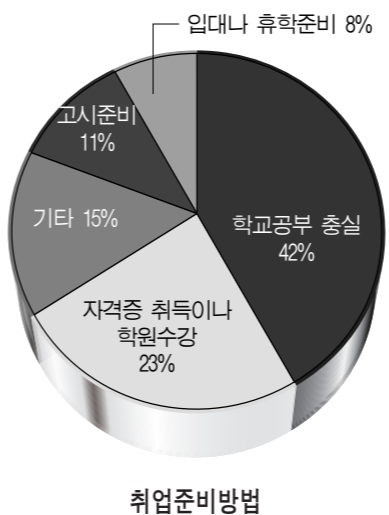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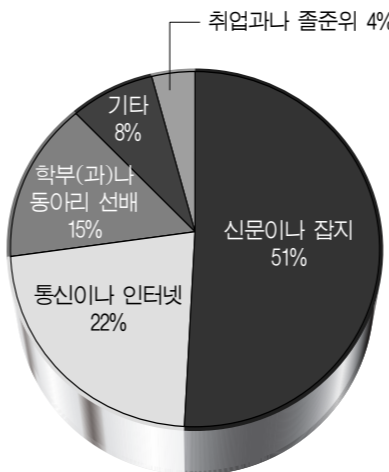
실업관련 설문조사

본교생 10명중 8명 “실업 걱정된다”

취업과·졸준위 제약할 못해 ... 실질적 대책 절실

본사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본교(서울·경주캠퍼스)재학생 4백32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실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교 학생 10명중 8명은 실업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대답해 실업이 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설문조사는 취업정보 획득방법, 실업의 실감정도, 취업준비대책, 실업난 타개책 등에 관한 내용으로 실시됐다.
 취업정보의 획득 방법을 묻는 질문에 신문이나 잡지(51%), 통신이나 인터넷(22%), 학부(과)나 동아리 선배(15%), 기타(8%)순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본교 취업과나 졸업준비위원회(4%)로 드러나 실질적으로 취업과와 졸준위의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신속한 취업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대학생 실업 실감정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감할 것 같다 51%, 심각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25%, 크게 실감하지 않는

다 12%, 나에게는 영향이 없으나 주위사람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준다 12%로 집계됐다. 이런 결과는 IMF체제 이후 대학생들이 실업문제를 몸소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이런 시대현실에 맞게 취업준비를 위한 자신의 강구책으로는 응답자의 42%가 학교공부 충실이라고 답했으며 자격증 취득이나 학원수강 24%, 고시준비 11%, 입대나 휴학준비 8% 순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실업난의 타개책을 묻는 의견에는 정부나 기업의 고용장출(46%), 개인 스스로의 철저한 준비(35%), 학교의 적극적인 고용정보 제공(9%), 대학원 입학 등 진학준비(6%)라고 응답했다.
 실업문제는 더 이상 정부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되 것이며 학교, 기업 등의 적극적인 취업 홍보나 취업기회 확대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한 실업난 극복을 위해 자기계발하는 노력이 실업을 타개할 수 있는 열쇠이다.
 박양우 기자



생존권 사수·재벌해체·IMF반대를 위한 '98민중대회

분노한 민중 요구 관철시키는 교두보 노동·시민단체 총망라한 대규모 집회 예정

사회개혁과 공정한 고통분담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IMF협상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리하고 위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 더 나아가 노숙자로 전락하는 등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또한 농가부채와 농산물 가격 폭락, 수해 피해로 인하여 농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이고 도시 철거민들은 공권력에 의해 거리로 내쫓기고 있으며 노점상 또한 철거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고급인력인 대학생들은 단란 취업문으로 인해 예비 실업자라는 땅에 속에서 좌절감에 빠져있다.
 이런 민중의 고통과 분노는 오는 7일, 8일간 개최되는 생존권 사수·재벌해체·IMF반대를 위한 '98민중대회'로 모아졌다.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주최로 민주노총, 전농, 한총련, 전교조 등 각계각층의 시민·재야단체가 공동연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7일 서울

대에서 전야제인 '전국노동자대회'를 필두로 8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본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대회에서 제기될 10대 민중요구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주권 회복을 통한 민중생존권 보장 △농가부채 해결, 식량자급 실현 △정치, 언론개혁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개혁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군비축소를 통한 항구적인 남북간의 평화기반 마련 △정리하고 중단을 통한 고용안정 쟁취 △노동법 개정으로 교원노조 법제화 이행 △중기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와 해외매각 중단 △철거민 주거권 및 노점상 합법화 실현 등이다.
 이번 대회는 민중 생존권보장과 재벌해체, 부당한 IMF협약 철폐를 통한 경제주권 회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동시에 현 정부의 그릇된 개혁방안을 바로잡고 고통받는 전체 민중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속)

‘동학의 민주’ 그 한길로

지난 22일 법인 이사회의 총총장 일방적 연인 결정에 대한 학내 주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동학의 민주화를 위해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법인결정 ‘부당함’ 공동된 의견

시행착오 극복... 4주체 적극적 연대 필요

‘법인이사회의 총장 중임결정 전면 무효화’를 위한 움직임이 학내 주체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제 주체간 연대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 달 22일 본교 법인이사회는 오복원 이사장을 비롯한 동국학원 이사 1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송석구(철학) 현 총장의 중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교수회, 직원노조, 대학원 총학생회, 총학생회는 이번 결정은 학내 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성명서와 집회 등을 통해 중임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선 총학생회의 경우 지난달 26일 이사장실 점거에 돌입하고, 중앙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내일(3일)의 전면휴업 성사를 위한 불상 앞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선전물과 대자보 등을 통해 재단의 날치기 총장낙점의 전면무효와 학내 제주체가 참여하는 총장 재선출 등을 요구하며,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총투표를 전개했다. 대학원 총학생회도 학부총학생회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난 29일 대학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학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원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30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으며 오늘부터 분임조

별 토론을 전개하면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학내 4주체들이 법인의 결정 전면 무효화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총장 선거를 둘러싼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여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가 초반부터 무산되는 등 불협화음이 일기도 했다. 교수회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 총장과 법인은 학과장 회의와 교수 일대일 면담을 통해 ‘중요한 시기에 총장 선거를 둘러싼 각종 분열과 소모적 선거운동은 대학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교수에게 지지서명을 당부했다고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실제로 불교대, 법과대, 사과대 일부교수, 불교문화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와같은 현 학내상황을 고려했을때 더 이상 각 주체가 연대없이 나아가는 것은 무리가 아닐수 없다. 본교와 비슷한 상황을 보였던 국민대(총장=현승일·사회학)의 경우, 지난 96년에 법인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현승일 현 총장의 재임을 결정 한 이후 끊임없는 학내갈등을 표출시키고 있다. 이현재 이사장은 재임결정 배경으로 변화와 개혁의 와중속에 대학이 처해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서라고 밝혔다. 이에 제 주체들은 현승일 총장 불신임투표를 전개하는 발빠른 대응을 보였지만 교수협의회, 총학생회와 노조 등의 연결고리가 약했던 상황에서 재단의 연인 결정철회를 주장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처럼 국민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내 4주체의 연대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중임결정 이후 일주일이 경과한 지난 30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연대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사안별로만 협조하겠다고 나오던 교수회가 지난 30일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 ‘노조와 다른 주체들과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선거일을 오는 12월 9일로 변경했다. 또한 중임결정 무효화 투쟁의 일환으로 교수회 농성에 돌입했으며 사안에 따라 노조와 협조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상연석회의 구성을 노조에 공식적으로 제안키로 결정했다.

사실 제 주체간의 연대 부분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묘한 입장차이에서 보여준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향후 강한 연대속에서 중임결정 철회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박영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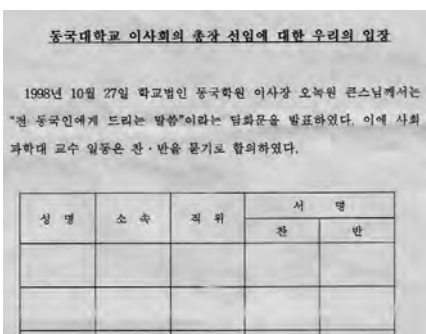
지난달 26일부터 총학생회 중앙위원들이 단식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학내주체들이 90주년 기념문화관 그림에서 연대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수회는 불상앞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송석구 총장 재선임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서가 교수들 사이에서 돌고 있음이 지난 29일 공개됐다.

총장 재선임 합법 논쟁

“동학에 민주주의적 희망은 없는가”

전 구성원 공유가 합법의 전제 조건

민주주의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서로를 인격으로서 존중하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때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으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의 실현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동국대학교는 공동체도 민주주의도 사라진 암흑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대학이 스스로의 지성을 불신하고 자기 공동체를 허무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재단은 일방적으로 송석구 현 총장을 신임총장으로 재임명할 것을 결정하였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해 학교장에 대한 재단의 임명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먼저 사립학교법이 어떤 법인가를 알아야 한다. 1990년 3월16일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현행의 사립학교법은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학교법인과 법인 이사장의 과도한 집권과 자의성을 허용하였고

학교와 재단의 관계를 절대적인 종속관계로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엄청난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사학의 압박보비에 의해 개악되고 말았다. 과연 그간 사립학교법은 법으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하였는가?

우리가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이나 유신헌법, 그리고 국가보안법등을 범죄적 해석을 떠나 법의 정당성 차원에서 악법으로 규정하듯이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의 전횡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갖가지 조항들로 인해 그 악법성이 이미 많은 대학에서 실례로 드러나고 있어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법의 정신은 물론이며 도덕과 상식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재단이 범조항을 이번 결정의 합리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내구성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재단은 현행법 아래서도 두차례에 걸쳐 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임명해 왔다. 그것은 재단의 일방적 낙점보다 진일보한 것이며 과정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적 발전

을 도모한 것이었다. 법인 이사회의 총장에 대한 최종적 임명권을 가지고 그 최종적 단계까지의 과정에 학내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에 있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립대학들이 학내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총장 선출과정을 제도화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운운하는 것은 현실인식의 부재라는 독재자의 말기적 특징을 보는 듯하다.

민주주의는 상식적인 것이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성원모두에게 권리와 의무가 주어져야 하며 인격적 존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며 이 상식이 지켜질 때 민주주의는 발현할여지가 있다.

재단은 하루속히 학내구성원들에게 민주주의적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만이 동국을 활력있고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지금을 전회위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적 희망!! 그것은 지금, 다른 아닌 재단의 총장선임 전면철회와 학내구성원들이 가능한 형태로 총장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뿐이다.

박혁
정치학 석사과정 2학기

임호일 교수 인터뷰

“일방적 총장연임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임호일(독문학) 교수

재단의 일방적 총장연임결정에 보직 교수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문과대 학장 홍기삼(국문학)교수와 중앙도서관장 임호일(독문학) 교수가 보직을 사퇴한 것이다. 두 교수의 결정은 전체 교수들은 물론, 학생, 직원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이에 임호일 교수를 만나 사퇴를 하

게된 동기를 들어보았다.

-지금의 심경은.

=많은 생각 끝에 결정한 것이다. 동국의 앞날을 위하는 길이라 여겨 결정한 것으로 후회는 없다.

-보직을 사퇴하게 된 동기는.

=교수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총장선거가 기습적으로 재단의 총장임명으로 인해 저지된 것은 학내주체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다. 재단이사회 의 일방적인 총장연임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중앙도서관장직을 내놓았다.

-학내 주체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희생과 눈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수들의 교권도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 학교의 교권이 회복되고, 민주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김미경 기자

이사장실 점거 농성장에서 만난 학생들

“학우들의 참여와 관심 필요”

생자대 2(여)

총장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켜 송석구 총장이 다시 선출된다면, 그때 그를 총장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나 지금의 법인이사회의 총장연임결정은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총장선출이 다시 진행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힘든 점은 없다. 단지 학우들의 적극적인

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바란다.

“총장낙점 부당성 알릴터”

문과대 1(남)

내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 않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학생들이 우리의 이사장실 점거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다.

단과대 학생회장들의 단식투쟁은 자칫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학생들에게 일방적 총장낙점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뜻대없는 교수님들에게 학생들의 연인결정반대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취재박수

동학의 꽃(?)

0...재단의 일방적인 총장 선출과 관련된 두분의 교수님께서 보직을 사퇴했다는데.

떠나가는 사람을 그냥 보내기 아쉬웠는지 송총장은 친히 두 분의 교수님을 불러 일대일 면담까지 했다고, 더군다나 면담자리에서 지금 떠나가면 후회할 것이라는 강한 아쉬움을 남겼었다. 이에 본 회전문대자 한마디 “너 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주시옵소서”

악법

0...“악법은 법이 아니라 다만 악일 뿐입니다”

본교 재단이사회는 이번 총장 선임을 사립학교법에 어긋남이 없는 적법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이와 반대로 불법을 주장하는 학내 주체들은 이미 정당성을 잃은 법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립학교법에서 정당성을 찾는 것은 우물거에서 송농 찾이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악법이 왕입니다요?”

전 동국인에게 드리는 말씀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은 우리 동국인 여러분에게도 많은 결실을 거두는 풍요로운 계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학의 언덕에서 학문연구와 학사행정에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국인 여러분에게도 본인은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자합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92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불교적 인격도야를 견학이념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 국가사회에 크게 기여한 민족의 사학인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본인은 동국학원을 대표하여 허심탄회하게 동국인 여러분에게 법인의 의지와 아울러 본인의 소회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따르는 다름 아닌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회의 현 총장 연임결정에 따른 최근 학내의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번 법인 이사회의 결정은 총장을 뽑을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 법인이사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거(사립학교법 제 53조와 법인 정관 제43조) 적법한 방법(이사 전원 참석)으로 만장일치에 의해 연임을 결정했다고 하는 사실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임된 송석구 총장은 연임이 불만인 자격과 업적을 갖춘 분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송석구 총장은 불교 견학이념의 구현에 누구보다도 적절한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분으로 3년 연속 본교를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격상시켰으며, 300여원이 넘는 발전기금을 확보하여 본교의 재정자립도를 높였고, 과감하고 역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일산의 제 3캠퍼스와 불교 종합병원 건립에 따른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하였으며 각종 건물의 신·증축 및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이미 유능한 총장이라는 정평과 함께 역대 어느 총장보다도 헌신적으로 동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신념 있는 분자입니다.

친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본인은 지난 봄학기과 가을학기의 개강전 학사보고회에서 총장후보의 교수회 선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매우 강도있게 천명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방침에 따라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실제로 지난 '90년 '95년의 총장선출과정에서 나타난 교수들간의 파벌 조성이나 구성원들간의 반목, 질시 등은 대학발전에 지해요인으로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1998. 10. 27.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吳錄園**

선거일정 변경

교수회가 농성투쟁에 돌입하게 된 비상

사태하에서는 선거일정을 지켜나갈수 없

으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함.

1. 후보등록 : 11월 11일(수)~11월 13일(금)
2. 후보심사 : 11월 16일(월)~11월 17일(화)
3. 후보공고 및 유세시작 : 11월 18일(수)
4. 선거일 : 12월 9일(수)

1998. 10. 30

동국대학교 교수회 선거관리위원장

선거 일정변경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

지난 10월 30일에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송석구총장의 집요한 선거 방해공작으로 인해 총장 선거일정을 부득이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송총장은 4년 전에 바로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된 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일방적인 연임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국 구성원들의 한결 같은 연인을 뿌리친 채 지금 온갖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선거 파괴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들태만 그는 불교대, 법과대, 사회과학대 등 각 단과대의 학생들과 자신의 측근들을 앞세워 해당 대학 교수들로부터 총장연임 지지서명을 총용하고 있는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직접 교수들을 집무실로 불러 지지서명을 강요하고 있기도 하다.

대학은 지성의 요람으로 이곳에서는 구성원 누구나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정의와 더불어 자유정신을 올바로 구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생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를 대표하는 송총장은 교수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요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교수들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 뿐 아니라 교수들로 하여금 강간으로 가는 발걸마저 무겁게 만들고 있다.

송총장의 이러한 행위는 재단이 우려하는 교수들간의 분열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교수와 학생간의 거리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동국을 끝내는 혼란과 불신의 도가니로 몰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교수회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송석구총장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고자 한다. 송총장은 어떤 것이 진정으로 동국대학교의 앞날을 위한 길이며 어떤 것이 해고 행위인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선거일정이 더 이상의 차질을 빚지 않도록 방해공작을 즉각 중지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강요에 의해 지지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교수님들께 본 교수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용기를 잃지 마시라는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들 뒤에는 우리 교수회와 말없는 다수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국에도 민주정신과 정의는 끝내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총장연임결정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어떤 위협과 농간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부처님께서도 우리의 정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1998. 10. 30

동국대학교 교수회

전국대학연극제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

수상작들 대부분 사회풍자·저항주류 ... 신선함과 진지함 돋보여

짧은 대학인들의 탐과 결실이 어우러진 연극축제가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그 열기를 뽐냈다.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전국 대학 연극제가 바로 그것이다.

대학간의 우애를 증진하고 창조적인 대학문화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는 전국 대학 연극제는 올해로 21 회째를 맞고 있으며, 전국의 대학들이 모두 참가하는 연극경연대회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21일 국민대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하여 마지막날인 28일까지 공연은 열정의 연속이었으며 매 공연마다 객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로 그 열기를 더했다. 한달 동안의 지역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작품은 총 8편으로 그 중 출품작 5작품이 학생 창작이며, 이들 모두 소외된 인간성과 도시화로 인해 폐쇄된 현대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 공연을 관람하고 나온 한 관객은 "대학생들 특유의 신선함과 진지

한 자세가 인상적"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나 반면에 작품을 선정하고 창작함에 있어 지나치게 심각하고 어려웠다는 심사위원의 평도 있었다.

개인상과 본상 부문으로 나뉜 시상식에서는 참신하고 탄탄한 구성의 희곡을 선정하는 희곡상으로 울산대의 '실루엣'이라는 작품이 수상했다. 그리스 여류 시인 사포를 등장시켜 성에 대한 선입견을 깬다는 시도를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본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국민대의 'No Service Area'는 할 살렌 감독의 'Denise Calls Up'이라는 작품을 각색한 것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중매체에 길들여지고 종속된 사람들을 전화라는 소재를 통해 유쾌하게 풍자해냈다. 그리고 통신도구를 통해 사람과 사람사이의 골이 깊어짐을 비판하며 동시에 타인에게 마음의 문을 먼저 열 것을 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연한 본교는 주인공의 어

린 시절과 현재를 오가며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인식하고 미래까지도 바꿔본다는 주제의 '다락방의 별 띄우기' 작품으로 동상을 수상했다. 전국 대학 연극제를 주관한 한국 연극 연출가협회 차태호 사무국장은 "연극에 대한 열정만을 지닌 대학생들을 통해 연극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우수한 희곡의 발굴과 뛰어난 가능성을 지닌 연기자를 만난 좋은 계기였다"며 이번 대회의 성과를 말한다.

"비록 이번 행사가 IMF 한과 때문에 협호로부터 재정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연승과정에서 힘겨움도 많았지만 수상이 전부가 아닌 걸 안다"는 한 참가자의 말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참가팀 모두가 서로에게 수고의 말을 건네며 막을 내린 대학 연극제가 앞으로 보아나오는 대학문화를 창조하는 예술활동의 주축이 되길 바란다.

최은진 기자

즐거운 대학생활

달하나 천강에 달

이들은 후회스러운 대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과거를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몇 자 적는 것이다. 먼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공공부를 열심히 해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라는 것이다. 프로축구 선수가 축구를 못하고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 의미가 없듯이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떠나야 한다.

다음으로 각종의 취미생활과 여가선용에 심혈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스포츠, 여행,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문학, 기타 다양한 독서 등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히 즐기라는 것이다. 이들과의 활동은 전공과 별개의 것이거나 시간을 뺏기는 상호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물론 그런점이 있다. 그러나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 이는 전공의 깊이와 폭을 더해주는 불가결의 요소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나의 주관적 생각에 따르면-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감상할 줄 모르고 즐기고 향유할 줄 모르는 인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학창시절에는 시간이 없으니 이들은 나중에

해야 한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젊어서 향유하지 못했을 경우 나중에 이를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짓말이다. 젊어서 사랑할 줄 모르고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사랑을 작심하고 시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 오늘이 인생의 종말인 것처럼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히 즐길 때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는 것이다. 혹자는 학업과 여가선용을 모두 완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바로 그런자가 실패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을 바라. 물론 세속적 의미의 출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런 불평을 안한다. 아무리 바쁜 와중이라도 자기 할 일 다하고 자기 취미생활 다하고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향유한다. 결국 자기의 능력과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끝으로 다양성이다. 매사에 자기와 다른 남을 인정하고,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와 다른 세계, 자기와 다른 견해와 철학이 존재한다는 것을 즐겁게 인정하라. 그리고 양보하고, 알면서 속이주는 여유를 가져라.



정연주 법과대 법학과 교수

학내환경문제 좌담

학내주체들 '강건너 불구경'

학내 문제인식 공론화작업부터 전문기관 설치해야

본 지면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학내 주체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문제를 근거리 접근법으로 다뤄 시리즈를 씁니다. 편집자

글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학내 환경문제 진단
2. 학내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3. 학내환경문제 대안찾기

학내 환경시리즈 두 번째인 '학내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찾아서'에서는 학내주체들간의 토론을 통해 학내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고찰하고, 개선 방안 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기로 한다.

일시: 1998년 10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경주캠 본사 회의실
참석자: 고창택(철학)교수, 이상기(관재과)계장, 서승환(경주캠 총학생회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사회자: 장희정기자

사회자 :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으나, 정작 학내주체들인 우리들은 학내 환경문제에 대해서 등한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번 논의의 내용을 크게 학내 주체들의 관심도와 쓰레기, 수질, 소음으로 나눠 진단을 해 주시고, 그 대처 방안 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 환경오염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학내 주체들의 학내 환경에 대한 인식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택 : 개개인을 스스로가 지금까지의 관성적으로 젖어온 습성으로 인해서인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실천에 옮기는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다들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기 : 환경에 대한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행정 실무담당자로서 쓰레기 분리수거 상황을 점검하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체들 스스로가 제 것에 대한 주체성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서승환 : 건강을 해치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환경문제가 공론화 될 때는 이미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야만 고민을 하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자 : 학내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찌꺼기 등의 수거상황과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한의대, 공대 등의 자연계열의 실험 약품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십시오.

이상기 : 쓰레기의 경우 캔, 병, 종이 및 일반쓰레기 3종류로 분리돼 처리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종이와 일반쓰레기로 따로 분리해 4종류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약



품폐기물은 약품저장 탱크가 있어 원액은 저장되고, 한번 걸러진 묽은 액의 경우에도 따로 모아 일정량이 되면 용역업체에 맡겨집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잔반처리기에 걸러져 가축업자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기숙사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가축사료나 비료로 처리해 음식물 재활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창택 : 한가지 덧붙인다면 소각장의

경우 위치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각장주위를 지나 칠때마다 불쾌감을 줄때가 종종 있습니다. 서울캠의 경우 소각장이 식당과 인접해 있어 위생적인 면에서도

한번쯤 재고돼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꾸준한 확인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자 : 소음의 기준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내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음과 이에대한 개선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택 : 강의 도중 야외공연장의 행사

가 상대편에서 보면 당연히 소음이 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어느정도 서로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서승환 : 교수님의 말씀대로 저 역시 서로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늦은 밤이나 시험기간중에 들리는 풍물패나 소리패 소리는 소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방음벽, 이중창문 설치를 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기 :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학내에 마련된 야외공연장의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술한 면이 있지만 크게 부족하지는 않으며, 방음벽, 이중창문의 경우는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도록 해야겠지만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양보하는 자세도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회자 : 학내음료와 정화조의 위생적인 측면에 관해 언급해 주십시오.

서승환 : 그러나 제가 학생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인하지 않고서는 모두 믿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기 : 각 건물마다 정수처리가 된 음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필터를

갈아끼우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의 경우 이번학기부터는 여과처리를 하지않고 외부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위생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학내 환경문제에 관해 짚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학내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택 : 현시점에서 시급한 문제라면 학내주체들간의 환경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 될 수 있는 여론화 작업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최고의 엘리트 단체인 대학에서 21세기 환경문제를 짚어지고 갈 환경운동가들은 반드시 필요하며, 대학자체가 환경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전진기지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기 : 우리 모두가 이제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 자신부터가 환경전문가가 돼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서승환 : 현재 총학생회내에는 환경국이 있지만 한해에 많아야 4번정도의 캠페인을 실시하는게 고작입니다. 환경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써 환경에 대한 고민을 정기적으로 풀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각 주체의 대표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환경문제가 이 자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학내주체들간에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정리=장희정 기자

영상매체비평

- 광고편 대학이미지 광고

“실제적인 약속을 수험생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대학설립과 정원은 자율화가 되고 있는데 대학에 진학할 수험생 수는 매년 줄고 있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배짱을 뽐기며 신입생을 기다리던 대학은 직접 학생 모시기에 나서야할 입장인 것이다. 이런 대학의 현실은 지금까지의 공급자 우선의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의 원리가 대학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95년부터 슬슬 활기를 띠던 대학광고는 96년 약 429억의 광고비를 지출했고, 작년에는 542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들어 경기

불황으로 다소 침체되긴 했지만 다른 업종의 광고비 감소에 비해서 대학광고비는 별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는데, 이는 그만큼 각 대학들이 광고활동이 절실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진리탐구의 산실인 상아탑이 사회전반에 만연된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물들어 실력보다는 단순한 이미지 만들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61%가 대학선택의 이유를 '그냥 그 학교의 이미지가 좋아서'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는 대학만을 탓할 문제는 아닌 듯 싶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학의 과제가 되어버린 것

이다. 학문적인 자존심만 내세우며 앉아서 학생을 기다릴 수 있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될까?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 스스로의 존재가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실제로 지방의 몇몇 대학과 모 여대는 활발한 광고활동을 통해 이미지를 바꾸고, 수험생들의 선호도를 크게 끌어 올렸다. 하지만 이들의 광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학교가 내세울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이나 학문적 성과 보다는 그야말로 막연한 이미지 소구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해서 그냥 좋으니 오라는 식의 메시지 밖에 전

달하고 있지 못하다. 이왕에 대학의 생존을 위해 꼭 해야 되는 광고라면 자신의 학교만이 내세울 수 있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특징들을 중심으로 보다 실제적인 약속을 수험생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학생과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 광고와 홍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대외적인 광고활동이 대학 내부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되어진다면 대학광고는 신입생 유치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양웅
금강기획 차장

서구적 가치는 무조건 옳다?

전통문화의 토대마련 위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 필요

얼마전 정부의 일본문화개방 발표이후 문화중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지면에서는 문화중속이 가지는 두가지 측면, 즉 산업업적이나 전통적이라는 논제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한다. 편집자

우리 문화사의 특수성

서구적 시각으로 '동양'을 바라보고 '비합리적, 비과학적'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비서구 사회에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대부분의 제3세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주로 서구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대부분의 제3세계에서 반제국주의는 곧 '반(反)서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서구를 모방한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은 까닭에 반제국주의는 '반(反)일본'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뿐 '반서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서양은 언제나 일제와 대비되는 것으로 일제의 침략 의도를 견제하는 '고마운 나라' (?)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에 위반되는 일제의 신사참배를 완강하게 거부하던 서구의 모습은 일제의 압제에 시달리던 한국인들에게는 우리를 돕는 '고마운 '우방이자 친구'로 여겨

졌고,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성경의 한글 번역은 천대반던 한글을 보급하는 근대적 계몽주의자들의 고마움으로만 기억되고 있으며, 기독교를 보급하기 위한 '선교 기지'로 설립된 각종 학교들이 단순히 근대 교육의 기초를 만들어 준 '고마운 이웃'의 자비로만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과 봉사의 순기능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순기능의 이면에 도사린 역기능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읽어내야 할 때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을 맞이한 제3세계가 '반제국주의' '반서양주의'를 외치고 있을 때, 우리는 '고마운(?) 미군정(美軍政)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고 있었다. 모든 것이 미국의 기준과 가치에 입각한 것이었다. 일제 강탈기에 일제 잣대와 가치 기준에 입각해서 전통 문화가 재단되었다면, 해방 이후에는 미국의 잣대와 가치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다시 한 번 재단되는 비극을 맞이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화사의

비극을 '비극'으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도 피가 솟구치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서구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한없는 동경심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에 대해서는 온통 법석을 떨면서도, 정작 서구 특히 미국의 대중문화는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온다.

그 와중에 젊은이들은 서구 문화에 길들여지고, 서구의 잣대로 우리의 문화를 재단하는 오리엔탈리즘은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젊은이들은 서구 문화에 길들여지고, 서구의 잣대로 우리의 문화를 재단하는 오리엔탈리즘은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미신'이나 '불경적 유산'으로 낙인찍힌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 민족과 함께 오랜 역사를 함께 했던 '전통 문화', '민족 문화'였고, 우리의 문화적 바탕은 언제나 '근대화=서구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역사에서 사라져갔던 것이다. 개항기 이래 우리의 문화사는 서구 중심적 가치가 당면시되는 지식으로 자리잡는 기간이자, 그것이 재생산되고 소비되어온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우리의 왜곡되고

중속적인 문화사를 감안한다면 오늘날의 종속적 문화 현실은 자업자득일 뿐이다.

문화 종속의 문제점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국악을 들려주는 것은, 70대 촌노들에게 모짜르트를 들려주는 것과 같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이긴 마찬가지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까지 우리 음악에 대해서 아무 것도 배우지도 듣지도 않고 사회에 배출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도 우리는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서양 문화의 비판적 수용'이라는 말을 신물나게 들어왔다. 그러나 과연 우리들이 그런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전통 문화에 대해서 아무 것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을 말인가? 철저하게 서구 중심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의 문화가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까?

대응 방안

문화적 주체성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전통 문화를 해독하고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민족 문화의 기반이 없는 이상, 이 땅은 서구 문화 산업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비록 지나치게 늦긴 했어도 미래를 내다보며 심을 수 있는 '사과나무'는 교육이외에는 없다. 전통 문화에 대해서 아무 것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대책도 탁상공론일 수밖에 없다.

서구적 교과과정 일색인 현재의 교과과정이 지속된다면 전통 문화에 대한 정당한 이해에 이를 수 없고,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서구 문화의 비판적 수용'이라는 구호는 언제나 한낱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며,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우실하
전통문화의 구성원리 저자

자유인식

학교안에서

제 2회 광고제

'경적된 사고와 시각의 틀을 깨는 예비 광고인으로의 두 번째 날개짓.' 광고학과에서는 하나되어 변화하는 날이라는 주제로 제 2회 광고제를 개최한다.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번 광고제는 테마 영상 상영과 홍보 공연, 졸업작품 및 참가작품 전시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오후에는 광고 실무인을 초청해 세미나도 열릴 계획이라고.

오는 4일, 5일 학술문화회관 전시장 동국관 1층 BSC 세미나실에서

뽕뽕 영화제

영화공통체 다담동에서는 3일간 영화를 상영한다. 첫째날 오후 1시에는 The Doom Generation, 3시 30분에는 3-4 X 10월, 6시에는 스크림1을 상영하며, 둘째날에는 페리 일람, 호동왕자와 나랑공주, 스크림2, 마지막날에는 Basketball Diary, 하나비, 해피투게더가 학생들에게 선보인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학림관 소강당에서

국악과 졸업발표회

경주캠 불교문화대 국악과에서는 첫 졸업발표회를 열 계획이다. 그동안 갈고 닦아온 숨은 실력을 맘껏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데, 50여명의 학생들이 기악, 성악, 전통무용, 불교음악, 불교무용 등에 이르기까지 장르별로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각 오후 4시 30분 경주 예술극장에서

발굴유물특별전

경주캠 박물관에서는 개교20주년을 맞이해 15년간 경주 및 인근 지역에서 출토된 7백 50여점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발굴유물은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것으로, 대표적인 유물은 엑스포를 상징하는 수막새, 금동여래입상, 인장 등이며 유적으로는 신라 석장사지, 남산 천룡사지 등이다. 오는 12월 3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4시 30분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 도서관 1층 박물관내 전시실에서

인터뷰

“문화중속의 우려에 대한 대책이 문화적 쇠국주의 일 수는 없다”

최근 비디오나 음반 등 문화산업부분에서 로얄티가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가 문화관광부에 의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이에 관해 문화중속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지면에서는 문화관광위 신기남(국민회의) 의원으로부터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 등을 들어보았다.



신기남(국민회의) 의원

-국내 문화산업(영화, 비디오 등)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영화의 경우, 근래 보기 드문 제작편수의 감소로 40여편을 신기남(국민회의) 의원

주 내용으로 하는 영화관계법의 개정 등으로 한국 영화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제작편수의 감소경향에도 불구하고 현재 26%를 유지하고 있다. 비디오나, 게임 등의 분야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정책으로 기초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점은 없는가?
=그러나 앞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 영상산업의 국내 진출로 비디오, 음반, 새 영상물에 대한 97년 로얄티 지불액이 6백82억에 달하고, 외국영화사가 자국으로 송금한 액수도 무려 2백50여억 원에 달해 국부의 유출이 심각한 실상이다. 또한 외국상품의 범람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 이에 대한 수용과 발전이라는 문화교류의 긍정성을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

-얼마전 정부의 일본문화개방 발표에 따라 일부 단체나 매체에서는 문화중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는데,
=일본 문화의 개방 방침은 과거의 어

두웠던 한일관계를 호혜와 평등의 관점에서 재정립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주로 산업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정부의 지원과 문화계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 될 수 있다고 본다.

-중속현상심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어떠한가?
=정부 또한 일부에서의 문화중속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 쇠국주의가 답이 될 수는 없다. 문화의 상호교류는 산업적 측면에서 자본주의적 거래 관계로 인한 무역역조가 심해질 수 있다는 단점과 아울러 상호간의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면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데, 구체적 방안은?
=첫째 정부는 영화진흥법, 공연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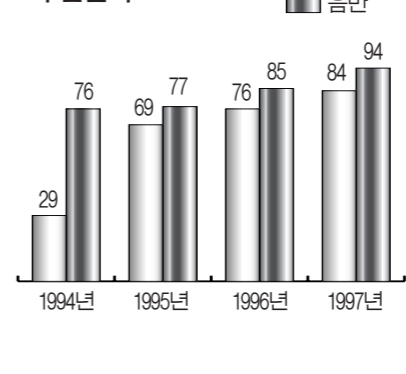
문화예술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을 진흥과 지원 위주의 법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둘째 문화산업의 경쟁을 위한 법적인 정비와 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해 뒷받침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산업시장의 전산화, 대형화, 현대화를 추진해 창작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분단의 20세기에서 화해와 협력, 통일의 21세기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분단의 여러 산물을 통일문화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문화의 중심에 서고자 한다면, 해양문화와 대륙문화, 동양적 가치와 서양적 가치를 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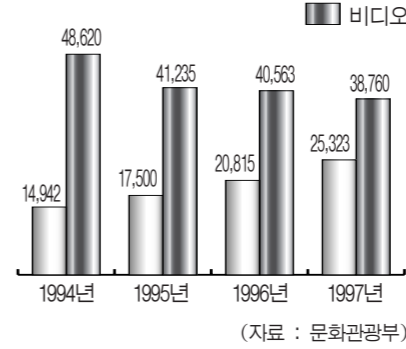
여기에서 새로운 문화는 보편성과 시대성,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박영실 기자

*수출실적(단위: 억)



*로얄티지불액(단위: 백만원)



(자료 : 문화관광부)

메아리

중도적 오해

▲사람이 다니는 길중에 가장 다니기 힘든 길은 아마도 중도(中道)일 것이다. 한 곳의 치우침도 없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그 상태를 어떤 가치로 측정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측정했다한들 그 지점에 도달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한 때 우리나라는 국한문 혼용이 국어교육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하여

한문사용을 제한하고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도 한문교육을 폐지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극단적인 처방은 몇 년 가지 않아 '한문교육 재실시'라는 오점만 남긴 채 폐기처분 됐다.

▲논쟁의 결과로 나타난 처방이 극단의 한 길을 달려 결국 처방이 처방으로써의 그 구실을 못한 경우는 비단 '한문교육'의 예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결국은 개방을 목적으로 두게 된

일본문화의 개방 공방이나 청소년 보호법 시행 이후 나타난 사회 여러 부분의 불협화음, 그리고 최근 제기된 영어 공용화 논쟁에 이르기 까지 상대방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는 모습은 비밀비재하게 나타났다. 자신의 주장만이 대안이 되고, 자신의 주장만이 진리가 되는 독선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 어떤 이로운 일도 하지 못한 채 폐기처분되기 일수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외길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고정관념을 지니고 살게 마련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도 따지고 보면 그 관념의 신축작용에 지나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자기 나름의 이해'란 곧 '자기 나름의 오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여차피 타인의 오해라지만 거기에도 중도적 오해라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중도적 오해만이 진정한 이해의 자제가 된다는 진리를 찾을 수 있다. 나의 논쟁의 상대를 적이 아닌 공통된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동지로 인식하고 나의 주장만을 앞세우기 보다는 타협과 공조의 자세로 귀기울이는 자세가 '중도적 오해'로 가는 길은 아닌지. 부연하자면 이해란 곧 오해이지만 오해에 사람이 가미되면 이는 다시 이해가 되는 것이다. 최진 문화부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 2603491-2 / (0561) 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소나기

학원자주



△학원자주를 위해 학원에 자주가자!
 △학원자주, 무슨 색일까? 희망의 색이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검정색인 것 같다.
 △학원자주 이룩하자, 투쟁!
 △총학 기관지 '자주학원의 길'과 관계있잖?
 △대학 악(惡)을 버리면 되지 않을까?
 △도서관 지어 도! 큰길로.
 △학원을 자주 다니자.
 △학원 자주(가면 돈만 깨진다)
 △잡아! 아이꼬
 △그렇게 있었던가?
 △나는 자유인이다
 △몇년째인가
 △더이상 '학원자주'를 외치기엔 입이 너무 아파라. 피곤하다.
 △학원자주는 자주 해야워.
 △학원자주가 뭐가요? 먹는 것인가?
 △학원자주가 안되니깐, 이사회가 설치되지!!!
 △학원자주(?) 학원자주(?) ~음 맛있겠다.
 △손이가요 손이가 학원자주에 손이가요 ~ ~ 누구든지 즐겨요!
 동국학원 자주.
 △단지 바라보기만 해라.
 △학원자주를 외칠 필요가 없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
 △70·80년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알림

동국 문학 40년 그 청년 문학의 길!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동국 문학회에서 다음과 같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오셔서 늦가을 문학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시·소설전
 11월2일-7일, 팔정도아와 만해시비 작가 공선옥씨 강연회
 11월5일 목요일 늦은 5시, 명진관 A105 '작가 공선옥의 삶과 문학'
 40주년 기념의 밤
 11월7일 늦은 6시, 학림관 소강당 -40주년 기념 문집 발간
 -시 낭송
 -동아리 축하 공연
 -시극 「감옥 형태소 분석」공연

시와 사랑의 한술밥 40대 동국 문학회

다향관 학생·보리수 식당 차림표

월	소고기국밥(1300) 고구마미림(1300) 비빔밥(2000) 두부김치(2000)
화	사골곰국(1300) 새우볶음밥(1300) 참치볶음밥(2000) 돈까스(2500)
수	아육국(1200) 집밥(1300) 오징어볶음(2500) 피자정식(2500)
목	반계탕(1500) 참치회덮밥(1300) 소갈비찜(3000) 햄어채볶음(2000)
금	소고기우육국(1200) 만두국백반(1300) 카레라이스(2000) 생선까스(2500)

(단위:원)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월	초밥우동(3000) 홍어찜(3200) 오징어까스(1300) 부대찌개(1300)
화	삼계탕(3500) 김치술밥(2800) 집밥(1500) 비빔밥(1300)
수	동태찌개(2800) 더덕구이(3000) 육개장(1300) 짜장밥(1300)
목	해장국(3000) 낙지볶음(3200) 후라이드치킨(1500) 참치우거지국(1300)
금	골뱅이전골(3000) 두부두루치기(2500) 스키야키택반(1300) 짬뽕국밥(1300)

(단위:원)

오술길

정재봉 (경영4·경주문화엑스포 자원봉사자)

“여유로운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자원봉사 통한 건강한 젊음 실현

“뭘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부끄럽네요”라며 인터뷰를 어색해하는 경영학과 4학년 정재봉군.

그는 지난 9월 경주세계 문화엑스포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통지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저만 하는거 아니예요.

제가 속해있는 전우회에서 교통지도 봉사활동을 하는데 엑스포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인 것 같아 동참했습니다”라며 씩스름하다는 듯 얘기한다.

하루종일 서 있어야 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다는 질문에 “다른 것 보다는



수신호를 알려주면 무시하고 잘 따르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경찰들이 얘기하면 무시위서(?) 그런지 잘 듣는데 글썽 자원봉사자들 말은 잘 안들더라구요”라며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걸까? “봉사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된다면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봉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처음 어색해 하던 태도와 달리 질문에 여유있는 웃음까지 지으며 얘기하는 그는 알고보니 1학년때부터 교내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했으며, 회장까지 역임한 경력이 있었다.

“로타렉트 활동하면서 많이 배웠죠. 큰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했습니다. 분명히 보람이 있거든요”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라 나쁜일도 잘 잊는다는 그는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봉사활동하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을 알았는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쉽게 친

정영희 기자

‘성’ 공론화된 현 사회 풍토 적절할 규제 계속 개방 긍정

요즘처럼 성에 대한 시각이 개방적이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영상 매체에서부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MBC TV의 특별 기획물인 구성애의 ‘아우성’(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을 위하여)이라는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성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으면서도 여유있는 재담으로 어린 아이에서부터 다 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녀는 현재 우리 나라의 잘못된 성문화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성의 소중함을 강조함으로써 많은 이들로부터 찬사를 듣고 있다.

비단 TV에서뿐만이 아니다. 은밀한 성 이야기를 오히려 거침없이 또는 유쾌하게 그려낸 영화나 비디오도 많이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애니메이션이다. 애니메이션은 소재의 제약이 없고, 그 표현 방식의 특성 상, 어떠한 종류의 이야기라도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과거에는 성인 만화가 주를 이루었지만 영상 기술의 발달과 함께 애니메이션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도 낮아짐에 따라 ‘포르노 애니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낯설지만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문화 관공부에서는 이번 연말까지 성인 영화를 포함한 모든 영화와 비디오에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 이른바 ‘완전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이러한 완전 등급 심사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선정성과 폭력성의 정도를 따져서 분류된 성인 영화만을 상영하는 성인 전용 영화관의 설치

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한다. 문화부의 이러한 결정은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의 성 개방적인 사회 풍조를 잘 반영한 효율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 성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성에 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기에 왠지 꺼려지고 쑥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요즘과 같이 영상매체에서 성에 대해 스스럼없이 표현하는 현상에 대해 성의 상품화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규제 속에서 행해지는 성개방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하다. 비밀스럽고 꺼려지는 성일수록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자연스럽게 거론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의 성은 대중들의 웃음 속에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한송(문과대 국어국문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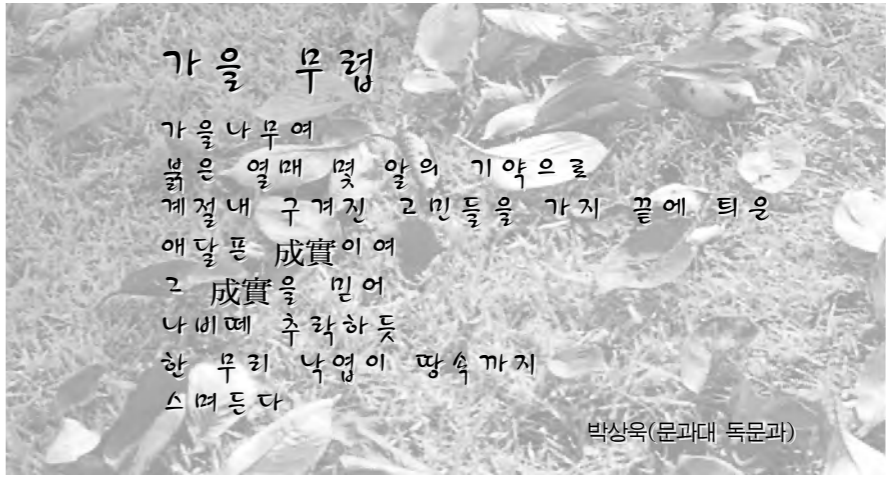
‘벼베기 행사’를 다녀와서

체험으로 배운 땀의 가치

지난 21일 다녀온 ‘벼베기 행사’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던 행사였다. 도시에서 자란 나는 한번도 논에서 일할 기회를 갖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그날 비로소 나는 매일 먹는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체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그리

고 별로 친하지 않았던 학부 친구들과 땀 흘리며 일하는 가운데 말문을 쉽게 틀 수 있었다. 또 어렵게 느껴지던 교수님들이 밭과 먼지에 흠뻑 젖은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거리감을 좁혀낼 수 있었다. 비록 중간고사 시험기간이라는 부담이 있었고 학교 측에서도 학사 일정을 미루는 어려움 가운데 치러진 행사였지만 그 하루의 시간을 통해 참으로 값진 교훈과 귀한 만남들을 갖게 됐다. 그러나 몇 가지 씁쓸한 일도 있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학과나 학교 행사에 항상 주변인이던 내가 이번 행사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봉사활동 1학점을 준다는 것과 참가 여부를 출석에 반영한다는 교수님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반감제적으로 잦았더라도 생각으로 즐거운 시간이란 했다. 그러나 경주에서 농사짓는 친구들 중에는 집의 일손이 바빠에도 불구하고 학점, 출석 등의 이유로 행사에 참가하기도 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루종일 집안일을 도왔다는 학우도 있었다. 그들에게 이번 행사가 반가운 일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그 친구들에 대한 학교측의 배려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이번 벼베기 행사는 자주 접하기 힘든 기회이기에 훗날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톨의 쌀도 그 안에 어려웠는 농심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값지고 풍성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희은(법정대 법철학부)



가을 무렵

가을 나무에
 붉은 열매 몇 알의 기억으로
 계절내 구겨진 그 민들레 가지 끝에 띄운
 애달픈 成實이여
 그 成實을 밟어
 나 비뚤어 추락하듯
 한 무리 낙엽이 땅속까지
 스며든다

박상욱(문과대 독문과)

동대신문을 읽고

이사회 일방적 총장선임 학내 주체의 논의부족 문제

부처님 말씀에 ‘어느 단체든 상하가 서로 화합하여 자주 공동의 일에 대해 논의하고 실천하면 쇠퇴하지 않는다’고 했다. 더구나 모든 일에 정답을 제시해주는 부처님 같은 성인현자가 없는 이 시대에 서로 논의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는 바로 논의의 부재에 있다. 힘을 바탕으로 총장을 일방선임한 이사회는 물론이고 그 주체들의 목소리가 제각각이라는 것은 학내의 논의부재가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님을 알게

해준다. 특히, 교수님들의 기존 입장은 학생·직원의 참여 불가였는데 이에 교수님들의 주장이 얼마나 정당성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다. 몇 년째 되풀이되는 이같은 사태를 성토하기 앞서 각 주체들이 스스로 얼마나 논의에 있어 열린 마음이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이사회의 이번 결정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학내의 민주적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며, 또한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현 총장이 학내주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일일 뿐이다. 학교의 중대한 사안은 학내에서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광범한 상식은 언제나 실현될까. 그리고 언제까지 동대의 중요한 결정들을 신라 호텔에서 매듭지어야 할 것인가. 유운호(불교대 불교학과)



동악광장



동달이

김경일 <16>

목명길

축하합니다

△민정이랑 한영이랑 CC됐어요! 축하!
 △사랑하는 원일! 축하한다 누구보다도 따뜻한 가을이 되길. -진
 △사인이가 철으로 치마를 입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11월 9일은 유스호스텔 93김성민의 생일야요. -링
 △늦었지만, 지난 28일 혁이형의 생일을 축하해요.
 △문학회 40주년을 축하합니다.
 △탐 착하고 예쁜 정아의 생일을 만나 만나 축하해. -은진
 수고하셨습니다
 △역교인의 밤 준비하신 분들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장은 날치기 낙점. 등록금을 გადა 부

과. 재단은 원사인(?). 내년에는 등록금 인하 투쟁을 합시다! 국교과 농성단 여러분 고생 정말 많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90동개 선배가
 △사과대 ‘능금제’ 하느라 고생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정아가 연극 잘해. 화이팅!
 △극제정지발표하는 2조! 열심히 합시다. -링
 그리고
 △정선아 우리 재미나게 꼭 여행가자 -혜선
 △PAGE ‘미안해요’
 △우리는 참스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교 97
 △사장님! 사랑해요! 사장님이 계시기에 저 또한 있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하는 후배
 △총남 보령지역 향우회 합시다. -친구들

-경욱
 △창연아, 유격 받으냐고 힘들었지! 감기 조심하고, 휴가를 기다리마 -피
 온방길
 축하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 선애의 2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M.R
 △경영 94 감히! 11월 2일 생일야래요. 주담들 다 모여라!
 △혜주야!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친구들
 -너를 사랑하는 친구 미나
 △주원아~ 11월 6일 생일 축하한다. -DRYU
 △성중이의 취업을 축하합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
 △11월 2일은 DUOO 13기 이상훈(경상 1)의 생일입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티없는 가발이
 △혜주야!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친구들
 △혜주야!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친구들

△11월 9일은 뜻난이 오버걸 경두 생일. 졸업하는 우리친구들 많이 축하해주세요. -영원한 너의 동년자들
 △11월 1일 사.복과 경희와 덕행이의 1주년을 축하하며 오래오래 행복해라. -97 사.복과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아그들이! 모두들 방송제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다. -13기 농미형
 △소영, 용의, 재우, 현찬, 지현, 주영, 호정, 주은 공개발표회 하느라 수고했다! 양!!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Newsweek
 열심히 합시다.
 △동목회 여러분! 전사회 준비 열심히 합시다. 파이팅! -20기 기용
 △태만이형, 규연, 재운, 상철, 허 동국연극회 졸업공연 연습 열심히 하세요. -티없는 가발이
 △보리가 11월 6일날 교환학생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예측불허 회원 여러분 모두 보리에게 기를 불어넣어 줍시다. 보리 파이팅! 열심히~ -숙이가
 △불교대 연합회 산하 풍물패 니르바나의 정기공연이 30일이에요. 모두 최선을 다 합시다. -모화공주
 알립니다
 △드디어 지난 11월 1일 신용우 일병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모두 건강해야 될걸. -교도소
 △경영4(주)상운회가 11월 4일(수) 저녁 6시에 불국사앞 신라명가에서 있습니다. 오후 5시30분 교문앞 버스대기. 경영4 학년 많은 참석 바람. -JOON
 △11월 5,6일 고전음악감상실 레코드감상회 5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승근아! 열심히 군복무하고 건강하게 돌아와요. -97사회복지학과 친구들